

노후 통학차량 LPG신차 교체 지원 확대

전주시,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폐차한 뒤 LPG 신차로 전환 시 700만원 보조금 지원

전주시가 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노후 경유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극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3억1,500만원을 투입해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9~15인승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한 뒤

LPG 신차로 교체하면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 차량은 약 45대다.

시는 올해 별도의 특례조항을 뒤 전주시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라면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았거나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4층)로 방문하거나 팩스(063-279-4599)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23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주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이달부터 격월로 완산구 소재 전주시 도서관 6곳에서 사서와 시민이 함께하는 북큐레이션을 진행한다.

사서·시민 함께하는 북큐레이션

전주 완산구 소재 도서관 6곳서 진행... 맞춤형 책 추천

"전주시 도서관에서 다양한 주제 맞춤형 책을 추천받으세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이달부터 격월로 완산구 소재 전주시 도서관 6곳에서 사서와 시민이 함께하는 북큐레이션을 진행한다.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특정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소개하거나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는 ▲사서가 추천하는 '사서의 책방' ▲도서관 이용 시민이 추천한 '시민컬렉션' ▲동네책방 책방지기가 선별해주는 '도서관 속 동네책방' 등이 운영된다.

'사서의 책방'에서는 3월까지

'트렌드코리아 2021'을 주제도서로 선정해 이 책에서 제시하는 10개의 키워드를 토대로 한 30여 권의 도서가 전시된다. 시민들의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민컬렉션'에서는 시민이 작성한 추천 글과 함께 20여 권의 도서가 소개된다. '도서관 속 동네책방'에서는 책방민의 개성 있는 큐레이션 도서를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완산도서관에서는 '세계적 북큐레이션'이, 삼천도서관에서는 '북택트(booktact)로 즐기는 세계의 여행'이, 서신도서관에서는 '경제와 재테크'가, 평화도서관에서는 '예술에 당신을 더하다'가, 효자도서관에서는 '힐링·북큐'가 각각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사기 연루 경찰·법원 직원... '수사결과 나오면 징계'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역대 규모의 마스크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법원 공무원에게는 최소한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구대로 발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경위의 신분을 믿고 마스크 값 2억원을 보냈지만 결국 마스크나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A경위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기록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주의 한 마스크 공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하지만 A경위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안다"라며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되면 검찰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분은 현재 필요 최소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면서 "당사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어 구체적인 징계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뉴시스

"생명 나눔 문화 확산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 연중 받아요"

전주시보건소, 각 동 주민센터·시청·구청 민원실서 연중 접수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후에 나올 수 있는 장기나 인체 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실제 기증은 희망등록자가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뇌사상태에 빠지

면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를 거쳐야 이뤄진다.

장기기증희망등록 희망자는 전주시보건소와 35개 동 주민센터, 시청·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본인확인 인증을 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기증희망등록증이 발

송된다.

시는 기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한 전주 시민에게 ▲전주시동물원 무료 입장 ▲보건소 무료 진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신선 소장은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기기증희망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10개 야외 체육시설 재개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일부 야외 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단은 15일 오전 6시를 기해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실외인라인롤러경기장 ▲완산생활체육공원 ▲덕진체육공원 ▲이중체련공원 ▲자전거

경륜장 ▲고덕생활체육장 ▲술내생활체육공원 ▲효자야구장 등 10개 야외 체육시설을 재개장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설 개방 후에도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운영 시간과 이용



완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원, 강좌의 제한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 분산을 유도하고, 증상 여부와 신원 확인,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샤워실 이용도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적용된다. 경기장 내외에서 5명 이상 따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재정기는 허용된다.

월드컵공장은 현재 진행 중인 티박스 잔디 전면 교체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 중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이날부터 1주일간 추이를 살핀 후 순차적으로 개장하기로 했다.

백순기 이사장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외 체육시설에 한해 재개장을 결정했다"며 "시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체육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될지 바라며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것을 시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음식점 정보 '한 눈에'

시, 총 3018개 음식점 정보 담긴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맛의 도시' 전주에 있는 3,000여 개 음식점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됐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음식관광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주 소재 3,018개 음식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한옥마을과 중앙동, 효자동 신시가지, 송천동, 중동 혁신도시, 전북대학교 인근, 삼천동 막걸리골목 등을 권역으로 25년 이상 영업 중인 노포(老舖)와 모범·향토음식점 등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음식점의 위치, 상호, 연락처, 매장사진, 영업시간 등의

정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메뉴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반려동물 출입 여부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세부 정보도 담겨졌다.

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전주시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해 전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유용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전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특성에 맞는 여행편의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도록 공공데이터와 민간기업의 데이터 매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